

대학기록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역할 모형과 거버넌스 설계*

- 실무자 의견 수렴을 중심으로 -

A Functional Model and Governance Framework for Improving University Records Management Systems: Based on Practitioner Perspectives

최 유 리 (You-Ree Choi)** 유 재 상 (Jaesang Yoo)***
김 지 혜 (Ji-Hye Kim)**** 김 송 (Song Kim)*****
오 효 정 (Hyo-Jung Oh)*****

초 록

대학기록물은 행정 업무뿐 아니라 학사, 연구 및 학생활동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기록으로 구성되며, 대학의 운영 및 역사와 더불어 사회적 기억을 담고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 그러나 현행 대학기록관리 체계는 일반 공공기관의 행정 기록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대학의 복합적인 조직 구조와 다양한 기록 생산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관리 주체의 불명확성과 영구기록물 장기보존 체계 미비 등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기록관리 관련 문헌과 국내외 제도 및 사례를 검토하고,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FGI 및 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운영 실태와 개선 요구를 분석하였다. 의견 수렴 결과 운영 기반 확충, 대학 특성을 반영한 기록관리 체계의 정비, 상위 관리체계 구축, 영구기록물의 장기보존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기록관리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간 역할 모형과 거버넌스 구조를 설계하고, 대학 유형별 운영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한 대학기록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고등교육기관의 기록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University records comprise diverse records generated through administrative affairs, academic affairs, research, and student activities, serving as important assets that embody the history of universities and social memory. However, the current university records management system is primarily designed for general public institutions and fails to reflect the complex organizational structures and diverse record-production environments of universities, resulting in structural limitations such as ambiguous management responsibilities and the lack of a long-term preservation system for permanent records. This study reviewed relevant literature as well as domestic and international systems and cases, and conducted interviews and focus group interviews (FGIs) with university records management practitioners to identify operational issues and improvement needs. The findings highlighted the need to strengthen operational infrastructure, establish a university-specific records management system, develop an upper-level management framework, and support the long-term preservation of permanent record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designed a functional model and governance framework for university records management and proposed operational support measures tailored to different types of universities. This study provides policy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university records management that reflect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universities and offers a foundation for future policy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

키워드: 대학기록관리,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역할 모형, 거버넌스, 정책 제언

University Records Management, University Archives, Functional Model, Governance, Policy Recommendations

* 이 논문은 교육부의 「고등교육기관의 기록관리 체계 개선 정책연구」(2026) 결과를 확장·보완한 것임.

** 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박사과정(choiulee@jbnu.ac.kr / ISNI 0000 0005 3064 6790) (제1저자)

*** 교육부 운영지원과 기록연구관(arms3@korea.kr) (공동저자)

**** 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박사과정(kimjh129056@gmail.com / ISNI 0000 0005 3091 7925)
(공동저자)

***** 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석사과정(ks77@jbnu.ac.kr / ISNI 0000 0005 3091 7968) (공동저자)

*****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공동연구원

(ohj@jbnu.ac.kr / ISNI 0000 0004 6798 3718)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 2026년 8월 12일 논문심사일자 : 2026년 8월 25일 게재확정일자 : 2026년 8월 31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7(3): 23-49, 2026.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6.37.3.023>

※ Copyright © 2026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대학기록물은 대학의 교육, 연구, 행정 활동 전반에서 생산되는 기록으로, 대학 운영의 증거이자 고등교육의 역사와 사회적 기억을 담고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 학적기록은 개인의 학업 이력과 학위를 증명하는 핵심 기록이며, 연구기록과 대학사(史)기록은 대학의 교육·연구 활동과 기관의 역사 및 정체성을 보여준다. 이는 행정적 가치뿐 아니라 학술적·사회적 가치를 지니며, 대학의 주요 기능과 변천 과정을 보여주는 연구자료로도 활용된다(공민은, 2018). 특히 학적기록은 졸업 이후에도 학력 증명과 자격 확인, 국제 학력 인증 등 국민의 공적 활동에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기록물로, 대학의 존속 여부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장기보존 체계가 요구된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대학 기록관리 매뉴얼」과 「대학 기록물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대학기록물 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기록물 관리 현장에서는 기록관리 인프라 부족과 법·제도적 한계 등으로 인해 이러한 기준이 충분한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다(이주연, 2008).

한편 국회미래연구원(2025)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학령인구는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대학 입학 미충원 인원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대학의 신입생 충원을 저하와 대학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면서 대학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대학 운영의 문제를 넘어 대학기

록물의 장기보존 체계에도 새로운 과제를 제기한다. 실제로 2000년 이후 2024년까지 총 22개 대학이 폐교되었으며, 폐교 이후 학적기록과 학위기록 등 국민의 권리 보장과 공적 활동에 필요한 기록물의 지속적인 관리와 장기보존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기록물의 안정적인 장기보존과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이 요구된다(김민경 외, 2018).

또한 대학기록관리 체계는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기록관리 인프라에서 뚜렷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국가기록원 주요통계연보(2024)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록관 설치 대상 대학 246개교 가운데 204개교(82.9%)가 사립대학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기록관 설치율은 30.4%에 불과하며, 전문요원 배치 현황에서도 동일한 양상이 나타난다. 이처럼 기록관 설치 대상 대학의 대부분이 사립대학임에도 기록관 설치와 전문인력 배치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대학기록관리 체계 전반의 균형 있는 운영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은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대학의 복합적인 조직 구조와 교육·연구 기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연구기록, 대학사 기록 등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비(非)행정 기록에 대한 관리 기준과 중요기록물의 선별 및 영구보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대학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에 한계가 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의 확산으로 대학에서는 학습관리시스템(LMS), 연구데이터관리(RDM), 전자결재 시스템 등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기록이 지속적

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영상과 SNS 등 비정형 기록물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기록의 유형과 관리 대상이 다양해지고 관리 주체 간 역할과 책임 또한 복잡해지고 있으나, 기존 기록관리 체계는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변화하는 기록 생산 환경을 반영한 관리체계와 협력체계의 재정비가 요구된다.

이와 같이 대학기록관리는 기록관리 인프라의 격차, 대학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법·제도, 영구기록물의 장기보존 문제, 디지털 기록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대학의 기록관리 여건뿐 아니라 대학기록관리 제도와 운영체계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어 개별 대학의 역량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학기록관리 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대학의 특성과 변화하는 기록관리 환경을 고려하여 현재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무적 한계와 개선 요구를 파악하고, 대학기록관리 관련 기관의 역할과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기록관리 현장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기록관리 관련 기관의 역

할 모형과 거버넌스를 설계하여 대학기록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대학기록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을 도출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실무자 의견 수렴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수행 절차는 <그림 1>과 같이 자료수집,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정책 제언의 세 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국내 대학기록관리 관련 선행연구와 해외 사례를 검토하여 대학기록관리의 현황과 주요 쟁점을 파악하였다. 이어 대학기록관리 운영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대학기록관리 실무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 및 인터뷰를 실시하여 현장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개선 요구를 수집하였다. 문헌연구와 실무자 의견 수렴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종합 분석을 거쳐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역할 모형과 거버넌스, 운영 지원체계를 설계하여 대학기록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그림 1> 연구 수행 절차

2. 대학기록관리 관련 선행연구 및 사례 분석

2.1 국내 대학기록관리 관련 선행연구

본 연구는 대학기록관리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논의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분석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를 ① 제도 공백 및 정책 연구, ② 대학기록관리 구조 및 운영 체계 연구, ③ 기록 활용 및 서비스 연구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먼저 ① 대학기록관리 제도 공백 및 정책 연구는 공공기관 중심으로 설계된 기록관리 체계를 고등교육기관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한계와 개선 방향을 살펴보았다. 이주연(2008)은 「공공기록물법」이 대학기록물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일반 공공기관 중심의 기록관리 체계를 적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기록 보존 및 관리 기능 강화와 국가 차원의 대학기록관리 지침 마련, 전문인력 및 인프라 확보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김지연과 김유승(2025)은 사립대학이 「공공기록물법」의 적용 대상임에도 기록관리 평가와 폐기 업무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지적하며, 교육의 법정 의무화, 기록물분류기준표 개정 절차 개선, 정부 차원의 인프라 지원 등과 함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립대학의 자율성과 정부의 관리 기능을 함께 강화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김현정과 배성중(2025)은 현행 기록관 설치 기준이 대학 규모와 기록 생산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학교법인과 대학 간 기록관리 주체가 불명확한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

며, 기록관 설치 기준 개편과 교육부 중심의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② 대학기록관리 구조 및 운영 체계 연구는 대학의 조직구조와 기록 유형에 따른 기록관리 운영 체계, 그리고 폐교 이후 기록물의 관리 주체·이관 체계 등 사후관리 방안을 검토하였다. 배성중 외(2015)는 거점국립대학 산학협력단의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하여 기록관 미설치와 전문인력 부족 등 기록관리 기반이 미흡하고 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법·제도와 산학협력단 기록관리 공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기록관 운영규정과 기록물분류기준표 정비, 연구성과 기록의 통합 관리 및 기록관과 산학협력단 간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박유진과 정영미(2019)는 대학의 이메일 기록관리 실태와 인식을 분석, 이메일이 업무의 주요 의사소통 수단임에도 장기보존이 미흡해 공적 기록보다 개인의 관리 영역으로 인식되는 경향을 확인하며, 대학 차원의 이메일 기록관리 정책과 관리 기준 마련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김민경 외(2018)는 폐교 사립대학의 기록관리 현황과 제도적 문제를 분석하여 기록관리 주체가 불명확하고 기록관 설치와 전문인력 배치가 미흡해 기록물 이관 및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행 법령이 폐교대학 기록물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배치 의무화와 기록관리 지침 마련, 교육부와 국가기록원 간 협력체계 강화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③ 기록 활용 및 서비스 연구는 기록정보서비스의 제공 방식과 대학기록관의 서비스 운영 체계를 중심으로 기록정보서비스

의 운영 현황을 검토하였다. 김두리와 김수정(2014)은 대학기록관 이용자의 기록정보서비스 인식과 이용 경험을 분석한 결과, 기록 이용이 내부 교직원의 행정 업무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록관리시스템 활용도가 낮아 기록연구사에게 검색을 의존하는 경향을 확인하고, 시스템 활용 교육과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웹 기반 서비스 확대를 제안하였다. 이해경과 이해영(2014)은 대학기록관 기록정보서비스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분석, 서비스가 행정 업무와 홍보·행사 지원 등 실무 목적에 편중되어 있고 이용자의 기록관 인식 부족, 소장 기록 부족, 인력 및 재정 부족 등의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내부 협력 강화와 기록 수집 확대, 전시·교육·온라인 서비스를 포함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김은진과 구정화(2020)는 대학기록관의 온라인 홍보 활동을 평가하여 기록정보서비스와 온라인 홍보가 전반적으로 미흡함을 확인하고, 이용자 맞춤형 정보서비스 개발과 기록관 안내 강화, 검색·열람 서비스 고도화 및 웹사이트 접근성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공공기록물법」이 대학의 조직 구조와 기록물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행정기록물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법인과 산학협력단 등 대학 내 다양한 조직에서 생산되는 기록은 관리 주체가 불명확하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록정보서비스는 행정지원 기능에 편중되어 있고, 폐교 이후에는 기록관리 주체의 부재로 인해 기록물 관리 공백이 발생하는 등 대학기록관리 체계 전반에서 구조적 한계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문제에 대한 개선을 넘어 대학기록관리 관련 기관의 역할과 협력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기록관리 실무자를 대상으로 FGI 및 인터뷰를 실시하여 현장의 개선 요구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기록관리 관련 기관의 역할 모형과 거버넌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2.2 국외 대학기록관리 사례 분석

국내 대학기록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해외 대학의 기록관리 사례를 조사하였다. 대상 국가는 대학기록관리 제도와 운영체계가 비교적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대학의 기록관리 정책과 업무 지침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 대학은 기록관리 정책, 보존·처분 기준, 책임주체 및 대학기록관 운영에 관한 자료가 공개되어 있어 국가별 운영 특성을 비교할 수 있는 기관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국외 대학기록관리 사례는 각 대학이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기록관리 정책, 지침, 기준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수행하였으며, 법·제도 및 지원 구조, 책임 주체 및 운영 구조, 보존·처분 및 영구보존 체계, 기록정보서비스의 네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1>과 같이 정리하였으며, 이를 통해 호주, 캐나다, 미국, 영국의 대학기록관리 체계를 비교하고 국내 대학기록관리 체계 개선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외 사례를 비교한 결과, 국가별 법·제도와 운영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나 기록관리 책

〈표 1〉 국외 사례 조사 대상 및 운영 특징

국가(조사대상)	법·제도 및 지원 구조	책임 주체 및 운영 구조	영구보존 체계	기록정보서비스
호주 (모나쉬대학교 ¹⁾ , ²⁾ , 멜버른대학교 ³⁾ , 가톨릭대학교 ⁴⁾)	• 공공기록물법과 고등교육 기준을 대학 내부 정책에 반영	• 정보 거버너 · 정보 스텐어드 · 기록관리조직 간 책임 분담 • 생산 부서가 현용기록, 대학 기록관이 영구기록 관리	• 자체 기준에 따른 영구기록물 관리 • 영구보존 기록물은 대학기록관으로 이관	• 구성원 대상 기록관리 교육 · 컨설팅 및 프로젝트 지원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⁵⁾ , 퀸즈대학교 ⁶⁾)	• 정보공개 · 개인정보관련 법령을 반영한 대학 자체 정책	• OPR(Office of Primary Responsibility)를 통해 기록 유형별 최종 책임 부서를 명확히 지정 • 기록관리 전담조직(RMO)과 대학기록관이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	• 영구기록물은 대학기록관에서 보존 • 보존기간 종료 후 폐기 또는 대학기록관 이관	• 기록 열람 및 연구지원 • 구성원 대상 교육 · 컨설팅
미국 (워싱턴대학교 ⁷⁾ , 미시간대학교 ⁸⁾ , 하버드대학교 ⁹⁾)	• 공립대학은 공공기록물법을 적용 • 사립대학은 관련 연방법 및 대학 자체 정책에 따라 관리 • 대학별 기록관리 정책 · 보존일정 운영	• 대학이 기록관리 및 영구보존의 책임 주체 • 부서 · 학과가 현용기록 관리하며, 대학기록관이 정책 · 평가 · 선별 및 영구보존 담당	• 기능 및 의사결정의 증거성을 중심으로 평가 · 선별 • 일부 공공가치가 있는 기록은 주 기록관과 연계하여 이관	• 웹 아카이빙 등 다양한 대학활동 기록의 수집 • 기록 열람 및 연구지원
영국 (세필드대학교 ¹⁰⁾)	• 국제표준 및 정보공개 관련 법령을 준거로 운영 • 대학 자체 기록관리 정책 · 분류체계 · 보존일정 수립	• 대학 의사결정 구조와 연계된 거버넌스 운영 • 기록관리 전담조직(RMS)을 중심으로 기록의 생성부터 처분까지 관리	• 보존기간 · 평가 · 폐기를 연계한 전 생애주기 관리	• 온라인 검색 · 예약 열람 • 전시 · 교육 프로그램 운영

Monash University (2025a)¹⁾, Monash University (2025b)²⁾, The University of Melbourne (n.d.)³⁾, Australian Catholic University (n.d.)⁴⁾,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n.d.)⁵⁾, Queen's University (n.d.)⁶⁾, University of Washington (n.d.)⁷⁾, University of Michigan Bentley Historical Library (n.d.)⁸⁾, Harvard Library (n.d.)⁹⁾, The University of Sheffield (n.d.)¹⁰⁾

임을 조직 차원에서 명확히 설정하고, 현용기록 관리와 영구보존 기능을 분담하는 구조가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호주의 경우 대학이 정보자산에 대한 최종 책임을 가지며, 정보 거버너, 정보 스텐어드 및 중앙 기록관리조직 등으로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여 정보 거버넌스 체계 안에서 기록관리를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는 Office of Primary Responsibility(OPR)를 통해 기록 유형별 최종 책임 부서를 지정하고, 기록관리 전담조직(RMO)이 현행 기록관리 기준을 운영하는 한편 대학기록관은 영구기록물 관리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기능을 분담하

고 있다. 미국은 부서 · 학과 단위에서 현용기록을 관리하고 대학기록관이 평가 · 선별과 장기보존을 담당하는 분산형 구조를 보이며, 기록의 보존 여부를 매체보다 조직 기능과 의사결정의 증거성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영국 세필드대학교는 Records Management Service(RMS)를 중심으로 기록관리 정책과 절차를 운영하고 이행 점검 및 성숙도 평가를 수행하며, 각 부서와 협력하여 기록의 생성부터 처분까지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대학기록관리가 특정 기록관리 부서의 업무에 한정되기보다 기록 생산 부서와 기록관리

전담조직, 대학기록관이 기능과 책임을 분담하고 상호 연계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국내 대학기록관리에서도 기록관리 주체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현용기록 관리에서 영구보존까지 연계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실무자 의견 수렴: 대학기록관리 현황 및 요구사항 분석

앞서 대학기록관리에 관한 선행연구와 국외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대학기록관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운영상의 어려움과 제도적 한계는 문헌이나 공개 자료만으로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우며,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의 경험과 인식을 반영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기록관리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체계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을 도출하기 위하여, 대학 기록관리 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자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FGI와 인터뷰를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수집된 인터뷰 자료는 인터뷰 항목에 따라 내용을 분류한 뒤 참여자별 응답을 비교하여 반복적으로 제기되거나 유사한 의미를 갖는 의견을 범주화하고, 대학기록관리 현장에서 나타나는 주요 문제점과 개선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별 의견의 맥락이 왜곡되지 않도록 인터뷰 원자료와 분류 결과를 반복적으로 대조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도출된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하여 대학기록관리 관련 기관의 역할 모형과 거버넌스 설계를 위한 근거로 활용하였다.

3.1 FGI 설계

실무자 의견 수렴은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기관 등 총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참여 기관은 다양한 설립 유형과 학교 유형을 포함하도록 선정하였으며, 참여 대상은 각 기관에서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사립대학 기록관리기관 관계자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일부 대학에서는 정보공개 및 보안관리 등 유관 업무 담당자도 함께 참여하여, 기록관리 업무와 유관 업무 간의 업무분장 및 업무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무적 쟁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의 특성에 따른 기록관리 운영 현황과 실무상의 차이를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만 사립대학의 경우 기록관 미설치나 전문인력 미배치 사례가 많아 참여 가능한 기관이 제한적이었으며, 이에 따라 사립대학의 참여 비중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참여 기관 현황은 <표 2>와 같다.

실무자 의견 수렴은 참여자의 근무 여건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2026년 1월 13일부터 4월 14일 사이에 대면, 화상 및 서면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기관별 참여 형태에 따라 인터뷰와 FGI를 병행하였다. 1차 의견 수렴 이후 추가 확인이 필요하거나 의견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 방식으로 2차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FGI는 모든 참여자에게 공통 질문을 제시하고, 기관별 기록관리 환경과 응답 내용에 따라 추가 질문을 실시하는 반구조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질문은 앞서 검토한 선행연구 및 국외 사례에서 확인된 쟁점을

〈표 2〉 FGI 및 인터뷰 참여기관 현황

구분	설립 유형	학교 유형	대학명	소속	직렬 (담당업무)	경력
1	국·공립대학	4년제 종합대학	A대학	총무과	기록연구사	10년 6개월
2			B대학	기록정보팀	기록연구사	15년 2개월
3			C대학	기록관(총무과 관할)	기록연구사	16년 9개월
4			D대학	기록·역사관	기록연구사	17년 9개월
5		4년제 교육대학	E대학	기록관리팀(총무처 관할)	기록연구사	11년
6			F대학	기록·안전팀(총무처 관할)	기록연구사	23년
7	사립대학	4년제 종합대학	G대학	박물관·역사관(대학기록실)	기록연구사	6년 4개월
8		2년제 전문대학	H대학	사무처 총무팀	기록연구사	6년 8개월
9	기타(특수)대학	대학원대학	I대학	디지털정보화실	기록물담당	4년
10	사립대학 기록관리기관		J기관	선임행정관		9년

〈표 3〉 FGI 및 인터뷰 질문 구성

구분	문항수	내용
1	6	• 대학기록관 기록관리 운영 현황 사전 조사 내용 검토
2	14	• 대학기록물의 주요 생산 유형과 구성 • 행정·학사 기록의 기준일 차이에 따른 관리 특성 • 문서 외 기록물 및 필수기록물 관리 현황 등
3	9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기관평가 결과 및 원인 분석 • 「공공기록물법」 이행에 따른 대학기록관리 실무 현황과 한계 파악
4	5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이관 경험 여부 • 30년 이상 기록물관리 실태 및 애로사항 등
5	3	• 대학기록관리 체계 운영상의 개선 요구사항 • 대학기록관리 정책 지원 및 교육부 역할에 대한 인식 파악
6	5	• 대학기록물 장기보존을 위해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립 또는 기록관 운영 방식 조정 등 기록물관리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실무자 의견 파악

반영하여 대학기록관리의 운영 현황과 제도적 한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표 3〉과 같이 총 여섯 개의 주제로 구성하였다.

먼저 대학기록관리 운영 현황과 대학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의 유형 및 관리 특성을 조사하고, 「공공기록물법」의 준수 실태와 현장 적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대학의 영구기록물 관리 실태와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였으며, 대학기록관리 체계

의 개선 요구사항과 정책적 지원에 대한 인식을 수렴하고, 끝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립 등 구체적인 체계 개선 실행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수집된 의견은 질문 주제별로 정리하여 대학기록관리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문제점과 개선 요구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이는 대학기록관리 관련 주체의 역할 모형과 거버넌스를 설계하고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3.2 대학기록관리 현황 및 문제점

3.2.1 대학기록관리 관련 규정 현황

〈표 4〉는 기록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및 기타대학의 기록관리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이다. 대학의 설립 유형과 운영 여건에 따라 기록관리 방식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기록관리 규정, 기록물분류체계 및 기록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방식에서도 대학별 편차가 확인되었다. 또한 인터뷰 대상 대학은 대부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1인이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대학 전체 기록을 소수 인력이 담당하는 구조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대학은 모두 기록관리 규정과 기록물분류체계를 마련하는 등 기본적인 기록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기록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방식에서는 대학 유형별 차이가 나타났다. 국·공립대학은 「기록관 운영규정」과 전국 국립대학 공동 단위과제를 기반으로 비교적 표준화된 체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향후 교육부 cRMS 도입을 통해 시스템의 통합 운영을 준비하고 있었다.

반면 사립대학은 대학별 규정과 기록관리기준표를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록관리시스템은 표준화된 보급 체계 없이 대학의 재정 여건에 따라 도입 여부와 형태가 크게 달랐다.

“저희 대학은 자체적으로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립대학에는 표준 RMS가 보급되지 않는 데다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도 커 일부 대학을 제외하면 기록관리 시스템 자체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 사립대학 실무자)

기타대학 역시 기관의 운영 환경에 맞추어 문서중앙화시스템(ECM)을 활용하거나 자체 RMS 구축을 추진하는 등 독자적인 방식으로 기록관리를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조사 대상 대학은 모두 기본적인 기록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기록관리 규정, 기록물분류체계 및 기록관리시스템은 대학별 여건과 자원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특히 국·공립대학은 공통 기준과 시스템 연계 기반을 갖추고 있는 반

〈표 4〉 대학 유형별 기록관리 운영 현황

구분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기타대학
기록관리 규정	• 「기록관 운영규정」을 중심으로 일부 대학은 「정보공개 운영규정」, 「기록관 이용지침」 등을 함께 운영	• 「기록물관리 규정」, 「기록물관리 지침」, 「문서관리 규정」 등 다양한 규정을 종합하여 운영	• 「기록물관리 지침」을 중심으로 운영
기록물 분류체계	• 전국 국립대학 공동 단위과제를 반영한 기록관리기준표를 적용하며, 대학별 특성을 반영한 단위과제를 추가 운영	• 대학별 기록관리기준표 또는 기록물 분류기준표를 운영	• 기록물분류기준표사용
기록관리 시스템	• RMS, 자체 시스템, 시스템 미도입 사례가 혼재하며 향후 교육부 cRMS로 전환 예정	• RMS 미도입 사례가 다수이며, 비용 부담으로 사료관리시스템 등 대체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미도입 상태를 유지	• ECM을 활용하여 전자기록을 관리 • 자체 RMS 구축 추진

면, 사립대학과 기타대학은 기관별 자체 기준과 운영 환경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 대학 간 기록관리 운영 체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2 대학에서 생산되는 기록물 유형과 종류

대학기록물은 생산 주체와 기록 유형이 다양하여 일반 공공기관과 구별되는 관리 특성을 보였다. 특히 보존기준 및 필수기록물 지정, 특수유형 기록물 관리, 연구기록 관리 과정에서 대학별 운영 방식의 차이와 관리상의 공백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표 5>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보존기준에서는 대학의 학년도와 기록 관리 기준의 차이에 대응하는 방식이 대학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대학은 주로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의 학년도(대학회계)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반면, 기록생산시스템에서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연도(일반회계)를 기준으로 기록을 관리한다. 일부 대학은 기록이 실제로 종료된 연도를

기준으로 보존기간을 산정함으로써 두 기준의 차이를 조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록생산시스템에서 해당 연도의 기록을 먼저 정리할 경우 이후 비전자기록물을 추가로 등록하기 어려워지는 등 실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전자기록물은 해당 연도의 기록을 정리하고 나면 추가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학회계는 2월 28일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12월에 기록을 먼저 정리하면 누락된 기록을 나중에 등록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록관리 측면에서도 2월 28일까지를 하나의 종료 시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A국립대학 실무자)

필수기록물은 대학별 자체 기준에 따라 지정·관리되고 있어 대상과 범위에 차이가 있었으며, 공통적인 지정 가이드라인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전자기록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데이터

<표 5> 대학의 유형별 기록물 관리 특성

관리 영역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기타대학
보존기준 및 필수기록물 지정	- 일반회계와 대학회계의 기산일 기준 차이에 따라 종료연도 산정 및 보존기간 운영 방식이 대학별로 상이함 - 필수기록물을 자체 기준에 따라 지정·관리함	- 회계연도 기준이 병행되어 보존기간 산정에 혼선이 발생함 - 필수기록물 지정 기준이 대학별로 상이하며, 일부 대학은 전자문서시스템 부재로 개인 PC를 활용해 기록관리를 수행함	전자기록 중심으로 기록을 관리함
특수유형 기록물 관리	시청각기록물과 행정박물은 주로 생산부서에서 관리하며, 기록관 요청 시 일부 이관함	- 시청각기록물과 행정박물은 현업 부서 중심으로 관리함 - 공간 부족과 관리기준 부재 등 관리에 한계가 있음	시청각기록물은 생산부서에서 관리하거나 일부 이관하며, 행정박물은 별도 관리체계가 미흡함
연구기록 관리	연구기록은 산학협력단 또는 발주기관이 관리하며, 대학기록관은 행정기록 관리 중심으로 운영함	연구기록은 산학협력단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와 대학기록관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가 혼재함	기관별 담당 부서에서 관리함

세트의 관리 범위와 절차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대학이 있었으며, 일부 대학에서는 전자 문서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개인용 컴퓨터를 활용하여 기록을 관리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특수유형 기록물은 대학기록관뿐 아니라 박물관, 도서관, 홍보부서 등 생산·관리 주체가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었다. 시청각기록물과 행정박물은 대부분 생산부서에서 우선 관리한 후 필요에 따라 기록관으로 이관하거나, 대학사 기록을 담당하는 박물관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로 인해 기록 유형별 관리 주체와 수집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나타났다.

“대학에는 기록관과 박물관, 도서관이 함께 있는데, 학교사 기록물은 대부분 박물관에서 관리하고 기록관에서는 관인과 같은 일부 행정박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행사 사진도 기록관이 직접 이관받기보다는 홍보부서에 보존하도록 요청하고 있어, 기록 유형에 따라 관리 주체가 나뉘어 있습니다.” (E교육대학 실무자)

이와 같은 운영 방식은 대학별 기록관리 여건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대부분 대학의 기록연구사는 기록관리 업무 외에도 다양한 행정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었으며, 전용 보존공간과 전문 관리시설도 충분하지 않아 특수유형 기록물을 지속적으로 수집·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로 인해 법령상 관리 대상이나 대학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충분히 수집하지 못하거나, 시청각기록물과 행정박물의 장기보존 및 활용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기록연구사가 기록물관리 업무만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행정업무를 함께 수행하다 보니 법령에서 정한 기록물이나 관심 기록물을 모두 관리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간행물관리도 현재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E교육대학 실무자)

마지막으로 연구기록 관리에서는 산학협력단과 학교법인에서 생산되는 연구기록의 관리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확인되었다. 연구기록은 주로 산학협력단이나 연구를 발주한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었으며, 대학기록관은 연구비 집행과 평가·폐기 등 일부 행정기록의 관리에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산학협력단 기록을 대학기록관의 관리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이 제시되었다. 대학 실무자는 연구성과물이 저작권과 특허권, 연구비 정산 및 발주기관과의 계약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산학협력단이 별도 법인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대학기록관이 연구기록을 직접 수집·관리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산학협력 과제는 대학의 교수나 연구원이 수행하더라도 대학기록관에 관리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성과물은 용역을 발주한 기관의 소유이거나 저작권·특허권과 연결되어 있고, 산학협력단도 별도 법인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기록관이 연구노트나 데이터를 가져와 관리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권한과 근거가 필요합니다.” (C국립대학 실무자)

반면 관련 기관 전문가는 산학협력단이 별도

법인이라든가 대학을 전제로 설치되는 종속적 조직이라는 점에서 대학의 기록관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조직도상 대학에 속한 부설기관이라면 처리과로 보고, 최소한 기록 생산현황을 통보받아 관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산학협력단은 별도 법인이지만 대학이 있어야만 설치할 수 있는 종속적 조직입니다. 별도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학의 기록관리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조직도상 대학에 속한 부설기관이라면 기록관리 측면에서는 처리과로 보아야 합니다. 적어도 생산현황을 통보받고 기록의 관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J 사립대학 전문기관 실무자)

이러한 견해 차이는 산학협력단 기록의 법적 지위와 대학기록관의 관여 범위에 대한 해석이 실무 현장에서 충분히 정립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대학기록물은 학년도 중심의 운영 방식, 박물관·도서관·산학협력단 등 다양한 기록 생산 및 관리 주체, 연구성과물의 복잡한 권리관계와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현행 기록관리 기준과 대학 내부의 운영체계는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학년도와 기록 정리 시점의 차이, 특수유형 기록물의 분산 관리, 연구기록 관리 주체와 책임의 불명확성이 주요 문제로 확인되었다. 이는 대학기록물의 생산 환경과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대학 내 관련 조직 간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3.2.3 「공공기록물법」 준수 현황 및 문제점

대학기록관은 「공공기록물법」을 기준으로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인터뷰 결과 현행 법령과 실제 대학 운영 환경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 항목을 바탕으로 「공공기록물법」의 대학 현장 적용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기록관 설치, 법령상 기록관리 의무 이행, 기록관리 평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각 영역에서 대학의 조직 구조와 운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공통적으로 확인되었으며, 대학 유형별 주요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하면 <표 6>과 같다.

인터뷰 결과, 기록관 설치 기준이 기록물 생산량 등 수량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대학의 규모와 기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실제로 현행 기록관 설치 기준은 <표 7>과 같이 기록물 수량을 유일한 판단 지표로 삼고 있어, 대학의 조직 규모나 기능적 특성과는 무관하게 설치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김현정과 배성중(2025)은 학생정원 66명, 교원정원 5명에 불과한 2년제 대학이 기록관 의무 설치 대상으로 지정된 반면, 학생정원 11,819명, 교원정원 889명에 달하는 4년제 대학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를 지적하며, 기록물 생산량 집계 방식의 문제로 인해 설치 기준이 대학 규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인터뷰 참여자 대부분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기록물 포착 기준에 따라 규모가 큰 대학이 오히려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거나 반대로 규모가 작은 대학이 의무 대상이 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고

〈표 6〉 대학 유형별 「공공기록물법」 준수 현황 및 문제점

구분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기타대학
기록관 설치 기준	• 기록물 수량 중심의 기록관 설치 기준 • 대학 특성을 고려한 차등 기준 필요	• 낮은 기록관 설치 수준 • 소규모 대학을 고려한 위탁 운영 등 대체 방안 필요	• 기록관리 체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
법령 이행	• 기록관리시스템 연계 및 이관의 기술적 한계 • 대학 특성을 반영한 기록관리 기준 필요	• 전문인력 및 기록관리시스템 부족 • 기록물 이관·보존 등 법령상 요구 사항 이행 미흡	• 1인 기록관 및 분산된 조직 구조로 인한 기록관리 한계 • 기록물 이관 및 지도·점검 수행에 한계
기록관리 역량 평가	• 타 업무 병행 및 조직 내 기록관리 인식 부족 • 대학의 규모나 특성을 반영한 평가 지표 개선 필요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전담인력 및 조직 내 인식 부족에 따른 기록관리 업무 수행 한계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평가 대상에서 제외 • 기록관 운영 여건에 따른 기록관리 업무 수행 제약

〈표 7〉 대학 기록관 설치 기준

구분	기준	주요내용
기록관 설치	연간 기록물 생산량 1천 권 이상 또는 보존대상 기록물 5천 권 이상	해당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장은 기록관을 설치하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함
기록관 미설치	연간 기록물 생산량 1천 권 미만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에서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하며, 체계적·전문적인 기록물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를 권고함
관련근거	「공공기록물법」 제4조,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78조, 제79조	

출처: 국가기록원 「2026년 대학 기록물관리 지침」

언급하였다. 반면 일부 참여자는 현행 기준이 대학의 행정 규모와 기록물 중요도를 고려할 때 기록관리의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로서 기능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현재 기록관 설치 기준은 기록물 생산량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학마다 규모와 기능이 다른 만큼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D국립대학 실무자)

“현행 기록관 설치 기준은 대학의 행정 규모와 기록물의 중요도를 고려할 때, 기록관리의 체계

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로서 기능한다고 봅니다.” (I기타대학 실무자)

법령상 기록관리 의무 이행 과정에서는 대학 유형과 무관하게 전담인력 부족과 기록관리시스템의 미비 또는 노후화로 인해 법령상 요구사항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는 대학의 조직 규모에 관계없이 나타나는 어려움으로,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지원과 운영 기준 마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기록관리 역량평가와 관련해서는 대학 유형에 관계없이 타 업무 병행, 기록관리에 대한 조직 내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평가지표에서 요

구하는 업무를 충분히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사립대학과 기타대학은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기록관리에 대한 기관 차원의 인식과 체계적인 운영 역시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의 유형과 관계없이 규모와 운영 여건을 고려한 평가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일부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국립대학 기록관리 평가지표(KPI)를 시범 적용한 결과, 기록관리 기반 구축, 업무 추진, 기록정보서비스 등 대부분의 평가 항목에서 국립대학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J사립대학 전 문기관 실무자)

이와 같이 대학기록관리의 문제는 개별 대학의 운영 역량뿐 아니라 대학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와 운영체계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록관 설치 기준과 기록관리 평가체계를 대학의 규모와 운영 특성에 맞게 개선하고, 법령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2.4 대학 영구기록물 관리 실태

대학기록관은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터뷰 결과,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 유형과 관계없이 국가기록원으로서의 기록물 이관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대학이 해당 기록물을 자체적으로 보관·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기록관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자체적으로 보관하면서도 재평가·재분류 및 처분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이관되지 않고 대학기록관에서 계속 보관하고 있습니다. 대학기록관에는 이를 재평가하거나 처분할 권한이 없어 사실상 단순 보관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국립대학 실무자)

이러한 권한의 한계로 인해 보존기간이 경과했거나 실질적 가치가 낮아진 기록물도 처분하지 못한 채 계속 누적되고 있었다. 아울러 일부

<표 8> 대학 유형별 영구기록물 관리 실태

구분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기타대학
영구기록물 이관	• 현재는 국가기록원으로서의 이관이 이루어지지 않음	• 이관 사례가 없으며 일부 대학은 학적기록물 등 영구기록물의 이관 필요성을 제기함	• 이관 사례 없음
영구기록물 관리	• 대학기록관에서 자체 보관하고 있으나 재평가·재분류 및 폐기 권한이 없어 장기 보관이 지속됨	• 자체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대학은 전자기록물 관리체계와 재평가 체계가 미흡함	• 자체 보관을 지속하고 있으나 시설·환경 기준과 운영 여건에 한계가 있음

사립대학에서는 학적기록물 등 핵심 영구기록물의 이관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영구기록물 이관 체계 정비에 대한 현장의 요구도 확인되었다.

3.3 대학기록관리 체계 개선 요구사항

대학기록관리 체계 개선 방향성과 실행 방안 에 관한 인터뷰 결과를 종합한 결과, 참여자들의 개선 요구는 크게 네 가지로 도출되었다. 먼저 참여자들은 대학기록관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인력과 예산, 시설 등 기본적인 기반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대학은 행정·학사·연구 등 기능별로 다양한 기록이 생산되고, 기록 생산 조직도 대학본부, 단과대학, 산학협력단 및 부속기관 등에 분산되어 있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환경에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1인이 기록관리 외의 업무까지 병행할 경우, 대학 전반의 기록을 파악하고 수집·평가·정리·이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기록관리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록관이 행정부서의 부속 기능이 아닌 독립적인 조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대학의 규모와 기능을 고려한 인력 및 예산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참여자들은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기록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현행 기록관리 기준은 일반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대학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의 특성과 운영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학사·연구·대학사 기록 등 대학 고유의 기록 유형과 학기제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업무 특성, 산학협력단·학교법인·부속기관 등 다양한 기록 생산 주체를 고려한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더불어 대학기록물의 특성을 반영한 기록물분류기준표와 보존기간 기준을 마련하고, 문서 외 기록물에 대한 관리 기준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대학기록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중앙 차원의 조정 및 지원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대학별 기록관리 수준과 운영 여건의 차이가 큰 상황에서 개별 대학이 기록관리 기준과 업무체계를 독자적으로 마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기록관리 기준과 지침의 마련, 실무 교육 및 컨설팅, 우수사례 공유 등 대학기록관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기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대학 간 기록관리 수준의 격차를 완화하고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협력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은 대학 영구기록물의 안정적인 장기보존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현재 대학에서는 영구보존 대상 기록물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례가 많으나, 영구기록물에 대한 평가·선별 권한이 부재한 상황에서 장기보존을 위한 전문성과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대학에서 생산된 영구기록물이 체계적으로 평가·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장기보존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운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대학의 역사적·행정적 가치를 지닌 기록이 안정적으로 보존되고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환경

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상의 네 가지 요구사항은 개별 대학 차원의 개선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과제이며, 대학 간 격차를 조정·지원하는 상위 체계와 영구기록물에 대한 별도의 관리 주체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는 현행 대학기록관리 체계의 운영상 한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대학기록의 특성과 장기보존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역할 모형과 거버넌스 설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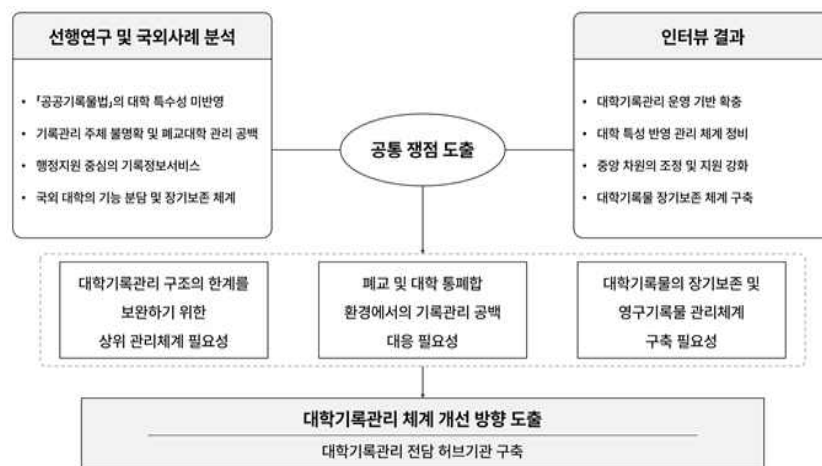
4. 대학기록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4.1 대학기록관리 체계 개선의 필요성과 설계 원칙

〈그림 2〉는 2장에서 검토한 선행연구 및 국외 사례 분석과 3장에서 도출한 실무자 의견 수

렴 결과를 종합하여 대학기록관리 체계 개선 방향을 도출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공공기록물법」이 대학의 조직 구조와 기록 생산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리주체의 불명확성과 폐교 이후 기록관리 공백, 행정지원 중심의 기록정보서비스 등 대학기록관리 체계의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국외 대학은 기록 생산 부서와 기록관리 전문조직 간 기능을 분담하고 장기보존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기록관리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자 의견 수렴에서는 운영 기반 확충, 대학 특성을 반영한 관리체계 정비, 중앙 차원의 조정 및 지원 강화, 영구기록물 장기보존 체계 구축 등 대학기록관리 체계 전반의 개선 요구가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상기 도출된 문제점들은 개별 대학의 운영 개선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성격을 지닌다. 대학기록관은 기록관리 실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영구기록물에 대한 평가·처분 권한을



〈그림 2〉 대학기록관리 체계 개선 방향 도출

보유하지 않으며 장기보존을 위한 물리적·기술적 인프라를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또한 사립대학의 경우 기록관리 전문인력과 조직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 존재한다. 이러한 여건에서는 정책 수립, 기록관리 지원, 영구기록물 관리 기능까지 개별 대학 기록관이 모두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 폐교 또는 대학 통폐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록관리 조직과 관리주체 자체가 소멸하여 학적기록, 인사기록 등 핵심 기록의 인수·보존을 담당할 기관이 부재하게 된다. 이러한 기록은 개인의 학력 증명과 경력 확인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와도 직결되는 공공적 성격을 지니는 만큼, 기록관리 공백은 개별 대학만의 문제로 보기보다 국가 차원에서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는 과제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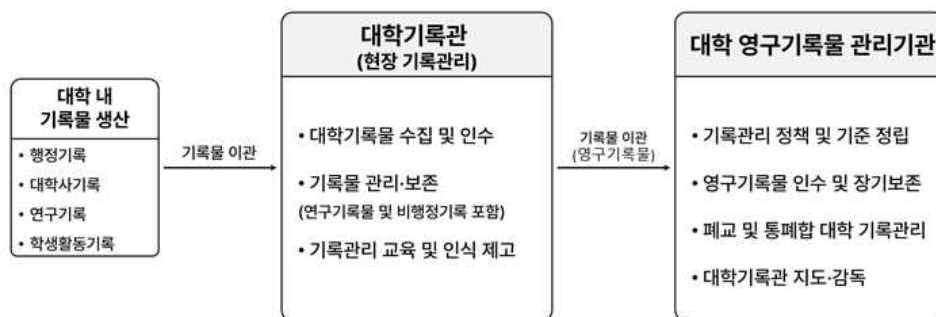
이러한 공통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대학 중심의 기록관리 체계를 넘어, 대학기록관을 조정·지원하고 영구기록물 관리를 담당하는 상위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기록관리 정책과 기준의 수립, 대학기록관에 대한 전문 지원, 영구기록물의 장기보존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

기관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상위 관리기관을 ‘대학기록관리 전담 허브기관’으로 정의하고, 이를 중심으로 대학기록관리 체계의 역할 모형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4.2 대학기록관리 역할 모형 제안

본 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기록관리 전담 허브기관을 대학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형태로 구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에 대학에서 생산된 기록물이 대학기록관을 거쳐 대학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보존되는 관리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각 기관의 역할을 <그림 3>과 같이 제시한다.

대학에서는 행정기록뿐 아니라 학사기록, 연구기록, 학생활동기록, 대학사기록물 등 대학의 교육·연구·행정 및 대학의 역사와 정체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기록물이 생산된다. 이러한 기록은 대학기록관에서 수집·관리되며, 영구보존 가치가 있는 기록은 대학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되어 장기적으로 보존된다. 대학기록관은 기록의 수집·관리·이관을 담당하



<그림 3> 대학기록관리 프로세스 및 기관별 역할 모형

는 현장 기록관리 주체이며, 대학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대학기록관리 정책과 기준을 수립하고 이관된 영구기록물을 장기보존하는 동시에, 대학기록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폐교·통폐합 대학의 기록관리를 총괄하는 상위 관리 주체이다. 이와 같이 대학기록물의 생산부터 관리, 이관 및 장기보존까지의 전 과정을 연계함으로써 대학기록물의 전 생애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본 구조를 제시하였다.

4.2.1 대학기록관의 역할: 현장 기록관리 주체로서의 기능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역할 모형에서 대학기록관은 대학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을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관리하는 현장 기록관리 주체로서, 기록의 생산부터 수집·관리·보존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에 이르는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대학기록관의 주요 역할은 <표 9>와 같다.

첫째, 대학기록물의 수집·인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대학기록관은 기존의 행정기록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대학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을 적극적으로 수집·인수하여야 한다. 이

를 위해 산학협력단, 학교법인, 학생활동 기록 등 관리 책임이 불명확한 기록을 수집 대상에 포함하고, 기록 생산 단계부터 수집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기록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또한 전자기록물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 디지털 환경에서 생산되는 기록 역시 수집 대상에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기록물의 관리·보존 기능을 체계화하여야 한다. 대학기록관은 기록물의 분류, 보존기간 관리, 접근 및 이용 관리 등 기록관리 기준과 절차를 일관성 있게 운영하고, 비전자 기록물의 훼손과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환경도 함께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향후 cRMS 기반 기록관리체계 도입에 대비하여 기록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메타데이터 표준화와 데이터 구조 개선을 통해 전자기록의 생산부터 보존까지 연계되는 관리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 기능을 수행한다. 대학기록관은 기록을 자체적으로 장기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영구보존 가치가 있는 기록을 선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표 9> 대학기록관의 주요 역할

기능	내용
수집·인수	• 산학협력단·학교법인·학생활동 기록물 등을 수집대상에 명시적 포함 • 기록물 생산단계부터 수집기준·절차 마련
관리·보존	• 분류·보존기간·접근관리 체계화 • 비전자기록물 보존환경 확보 • cRMS 도입 대비 데이터 정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	• 이관대상 선별·이관절차 정비 • 대학 여건별 차등 전략(기록물 우선 이관/원본이관+DB화 병행)
처리과 기록관리 교육 및 인식제고	• 교직원 대상 정기교육 • 연구기록·학생활동 등 대학특화 영역 맞춤교육

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기록물의 생산 맥락과 관리 이력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이관 대상과 시기, 절차를 명확히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대학별 기록관리 역량과 보존 여건을 고려하여 소규모 대학은 우선 이관을, 관리 체계가 안정된 대학은 원본 이관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병행하는 등 차등화된 이관 전략을 적용할 수 있다.

넷째, 기록관리 교육 및 인식 제고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대학기록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록관리 담당자뿐 아니라 교원과 직원 등 기록 생산자의 인식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기록관리의 기본 원칙과 생산·등록 절차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연구기록과 학생활동 기록 등 대학 특화 기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4.2.2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 상위 관리 주체로서의 기능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대학기록관리 전담 허브기관으로서 대학기록관리 체계의 상위 관리 주체이다. 국가기록

원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표준모델: 기능 및 업무절차」에서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필수 기능으로 기록물의 수집관리, 정보구축, 보호·보존 및 서비스를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관할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국가기록원, 2022).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능과 업무를 대학기록관리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여, <표 10>과 같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정책 수립, 장기보존, 지도·지원 및 기록정보서비스로 제안한다.

첫째, 대학기록관리 정책 및 기록관리 기준을 정립하여야 한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대학기록관리의 중장기 정책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록의 생산부터 보존에 이르는 전주기 관리 기준과 표준모델을 마련한다. 또한 학사·연구·학생활동·대학사 기록 등 대학 특화 기록 유형에 대한 관리 기준을 정립하고, 강의계획서, 연구데이터, 온라인 강의자료, AI 활용 기록 등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생산되는 기록물에 대한 관리 기준을 구체화하여 대학기록관리 체계의 일관성과 확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표 10>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주요 역할

기능	내용
정책·기록관리 기준 정립	• 중장기 정책·표준모델·전주기 관리기준 수립 • 대학특화 기록유형(연구·학생활동·대학사) 관리기준 • 디지털 신유형 기록물(연구데이터·AI활용기록 등) 기준 마련
영구기록물 인수 및 장기 보존	• 진본성·무결성 유지 및 폐교 대비 보존체계 구축 • 학적정보시스템(DB) 기반 위·변조 검증·기관간 정보연동
대학기록관 지도·감독 및 지원	• 평가체계 개발 • 사립대·소규모 대학 차등지원 • cRMS 구축지원·공동표준모델·인력과전 등 격차 완화
기록정보서비스 제공	• 정보공개청구 서비스 일원화 • 디지털 아카이브

둘째, 영구기록물을 인수하여 장기보존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대학에서 이관된 영구기록물을 안정적으로 보존하고 기록의 진본성과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기보존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학적기록, 교원 인사기록, 연구성과물 등 공공적 가치가 높은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폐교 또는 대학 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록 유실에 대응할 수 있는 보존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지털 장기보존 기술을 적용하고 학적정보시스템(DB) 기반의 진본성 검증 및 기관 간 정보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기록의 신뢰성과 지속적인 활용 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대학기록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운영 지원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대학기록관리 수준의 균질화를 위해 대학 특성을 반영한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기록관리 기준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립대학과 소규모 대학 등 기록관리 기반이 취약한 기관에 대한 차등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cRMS 구축 지원, 공동 활용 표준모델 제공, 전문인력 교육 및 기술 지원 등을 통해 대학 간 기록관리 역량의 격차를 완화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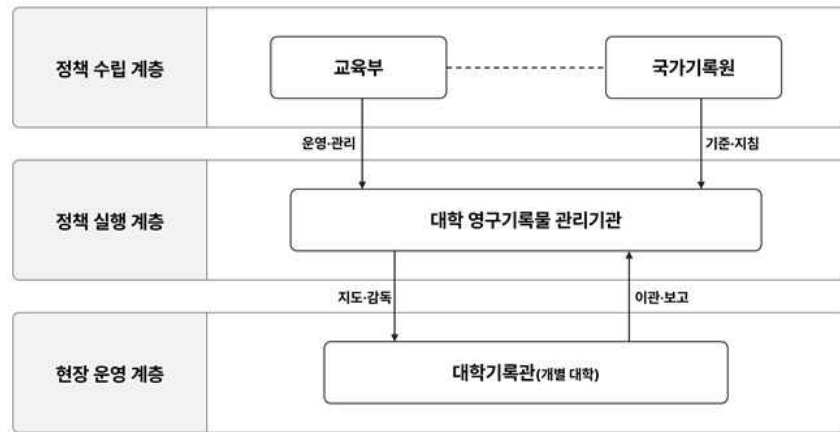
넷째, 대학기록물의 활용을 위한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이관된 기록물을 활용하여 국민에게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학기록물의 활용을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청구 서비스를 일원화하고, 디지털 아카이브와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록물의 검색·열람·활용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대학사 콘텐츠와 교육·연구지원 등 다양한 기록정보서비스를 통해 대학기록물

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공공 기록자산으로서의 활용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3 역할 분담 모형의 실행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

앞 절에서는 대학기록관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구분하여 대학기록관리 체계의 역할 모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 모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대학기록관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뿐 아니라 대학기록관리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과의 관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가기록원은 국가 차원의 기록관리 정책과 기준을 총괄하고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기관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고등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로서 대학의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대학 기록관리시스템의 공동 활용을 위한 cRMS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기록관리 체계의 실행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가기록원과 교육부를 포함하여 각 기관이 담당하는 정책적·실무적 역할과 상호관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도출한 역할 모형을 제도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기록원, 교육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및 대학기록관 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 체계를 정책 수립, 정책 실행 및 현장 운영의 3개 계층으로 구분하여 <그림 4>와 같이 제안한다.

국가기록원은 국가 차원의 기록관리 법·제도와 범용적인 기록관리 기준을 수립하는 최상위 기관으로 기능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범용 기준을 고등교육기관의 특성과 운영 환경에 맞



〈그림 4〉 대학기록관리 거버넌스 구조

게 정책화하고, 대학기록관리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총괄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주체이다. 즉, 국가기록원이 기록관리의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다면, 교육부는 이를 대학 현장에 적용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그 집행 주체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관리·감독한다.

교육부와 개별 대학 사이에는 대학기록관리 전담 허브기관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위치한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교육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대학기록물의 이관과 장기보존을 담당하는 동시에, 대학기록관이 정책과 기록관리 기준을 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 실행 주체로 기능한다. 또한 대학기록관으로부터 이관되는 영구기록물을 관리하고, 대학 현장에서 발생하는 운영상의 문제와 개선 요구를 교육부에 전달함으로써 정책과 현장을 연계하는 매개 역할을 수행한다.

대학기록관은 기록물의 생산·등록·분류·보존·이관 등 기록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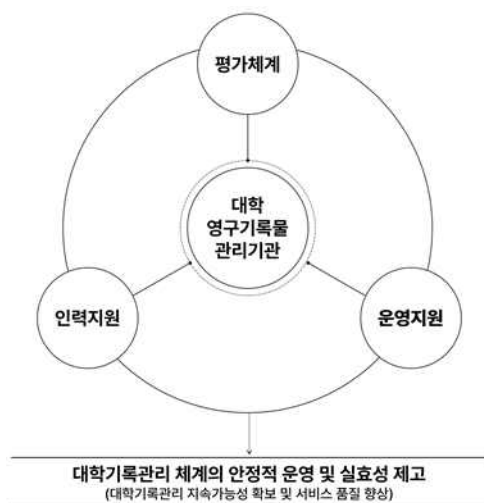
현장 운영 주체로서, 상위 기관이 제시한 정책과 기준을 대학 현장에 적용한다. 특히 대학에서 생산되는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영구보존 가치가 있는 기록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며 운영 현황을 보고함으로써 대학기록관리 체계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한다.

이와 같은 거버넌스 구조는 정책 수립, 정책 실행 및 현장 운영이라는 세 계층의 역할 분담을 기반으로 하며, 각 계층이 기능적으로 연계되는 구조를 지향한다. 특히 기록관리 기반이 취약한 중·소규모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교육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컨설팅, 교육, 시스템 구축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대학 간 기록관리 수준의 격차를 완화하고, 대학기록관리 체계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4.4 대학기록관리 운영 지원체계 및 유형별 적용 방안

앞 절에서는 대학기록관과 영구기록물관리

기관의 역할을 구분하고, 국가기록원, 교육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및 대학기록관 간의 거버넌스 구조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대학은 설립 유형과 규모, 조직 구조, 재정 여건 및 기록관리 역량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사립대학과 소규모 대학은 기록관리 전문인력과 조직, 시스템 등 기본적인 운영 기반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앞서 제안한 역할 모형과 거버넌스 구조가 대학 현장에 실질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지속적인 지원체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중심으로 평가체계, 인력지원 및 운영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지원체계를 <그림 5>와 같이 구성하여 제시한다.



<그림 5> 대학기록관리 운영 지원체계

우선 평가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현재 대학 기록관리 평가는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의 복합적인 조직 구조와

다양한 기록 생산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특히 사립대학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기록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학기록관리 평가는 행정기록뿐 아니라 연구기록, 학생활동 기록, 산학협력단 기록 등 대학 특화 기록물의 관리 수준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평가 대상 또한 사립대학을 포함한 전체 대학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평가는 단순한 수준 진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권고와 후속 점검, 교육 및 컨설팅을 연계하는 환류체계로 운영함으로써 대학기록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전문인력과 조직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다수의 대학에서는 기록관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기록연구사가 다른 행정업무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기록물의 수집과 평가, 이관 및 기록정보서비스 등 고유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학의 규모와 기록 생산량, 조직 구조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기록관 설치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대학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대학의 규모와 기능을 고려한 기록관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기록관리 전담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록관리 기반이 취약한 대학에 대해서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인력 파견, 공동 인력 활용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장 중심의 운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기록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

영되기 위해서는 정책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뿐 아니라 이를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행 기반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대학기록관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직무교육과 실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대학별 운영 여건과 평가 결과를 반영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cRMS 구축 지원, 표준 운영모델 제공, 기술 지원 등을 통해 대학기록관의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대학기록관 실무자를 중심으로 한 협의체를 운영하여 정책 변화와 운영 경험, 우수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지원체계는 대학의 규모와 기록관리 역량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 대규모 대학은 독립적인 대학기록관을 중심으로 연구기록과 비행정 기록을 포함한 전주기 기록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기록정보서비스 기능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중규모 대학은 독립 기록관 운영을 기본으로 하되 교육과 컨설팅, 전문인력 지원 등을 병행함으로써 기록관리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반면 소규모 대학이나 전문대학은 자체적으로 기록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큰 만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표준 운영모델과 기록관리시스템, 전문인력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지원 중심의 운영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이와 같은 차등적 지원체계는 대학의 규모와 운영 여건에 따라 평가체계, 인력지원, 운영지원의 비중과 방식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대학간 기록관리 수준의 격차를 완화하는 동시에 앞 절에서 제안한 역할 모형과 거버넌스 구조가 대학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대학기록관리 체계 전반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공공기록물법」 중심의 현행 대학기록관리 체계가 대학의 조직 구조와 기록생산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대학은 행정기록뿐 아니라 학사, 연구, 학생활동 등 다양한 기록을 생산하는 복합적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표 11> 대학 유형별 운영 지원 방안

유형	해당 대학	운영 모델	운영 지원 방향
대규모	• 국·공립 종합 대학 • 주요 사립 종합 대학	• 독립 기록관 중심의 전주기 기록관리 체계	• 연구기록·비행정 기록 관리 기능 확대 • 기록정보서비스 고도화
중규모	• 지방 국립대학 • 일반 사립대학	• 독립 기록관 운영 및 컨설팅·교육 지원 병행	• 기록관리 전담 부서 단위 기능 확보 • 인력 파견제 활용
소규모	• 소규모 사립대학 • 전문대학	• 대학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직접 지원·관리	• 도서관·박물관 통합 운영 허용 • 표준 운영 모델 제공 • 전자문서생산시스템 도입 지원 • 중요기록물 관리시스템 제공(학적부 등)

현행 대학기록관리 체계는 일반 행정기관 중심의 기록관리 제도 아래 운영되어 기록관리 책임과 지원체계, 영구기록물 관리 측면에서 구조적인 한계를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기록관리 체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국외 사례 분석, 대학기록관리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기록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가 대학기록관리의 제도적 공백이나 폐교대학 등 개별 쟁점을 중심으로 대학기록관리의 문제를 부분적으로 살펴보았다면, 본 연구는 실무자 의견 수렴을 통해 대학기록관리 현장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개선 요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 둘째,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 요구를 토대로 대학기록관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대학 유형별 운영 여건을 고려한 지원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현장 적용이 가능한 개선방향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를 가진다. 셋째, 국가기록원, 교육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및 대학기록관의 역할 관계와 협력체계를

구체화한 역할 모형과 거버넌스 구조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대학기록관리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를 가진다.

한편 본 연구는 대학기록관리 현장의 실무자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였기 때문에 고등교육 관련 다양한 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모두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사립대학은 기록관 미설치나 전문인력 미배치 사례가 많아 참여 대상 기관을 확보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대학과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실증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역할 모형과 운영 지원체계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과 운영 모델, 법·제도적 기반, 대학 유형별 기록관리 지원체계 등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대학기록관리 정책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정책 제언이 대학기록관리 체계의 개선과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대학기록관리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6호.
공민은 (2018). 대학 내 학생 관련 기록물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국가기록원 (2022).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표준모델: 기능 및 업무절차(NAK 9:2022(v2.3)).
국가기록원 (2024). 주요통계연보. 행정안전부.

- 국가기록원 (2026). 대학 기록물관리 지침. 행정안전부.
- 국회미래연구원 (2025).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교육 위기, 미래 대학교육 시스템 전환 필요성 검토.
- 김두리, 김수정 (2014). 대학기록관 이용자의 기록정보서비스 인식에 관한 연구: J교육대학교를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1(4), 29-47. <https://doi.org/10.3743/KOSIM.2014.31.4.029>
- 김민경, 소정의, 김유경, 오효정 (2018). 폐교 사립대학 기록관리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서남대학교를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9(4), 203-225.
<https://doi.org/10.14699/kbiblia.2018.29.4.203>
- 김은진, 구정화 (2020). 국내 대학기록관의 온라인 홍보 활동 분석 및 평가: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4(4), 283-315. <https://doi.org/10.4275/KSLIS.2020.54.4.283>
- 김지연, 김유승 (2025). 사립대학교 기록평가업무 개선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5(3), 83-103.
<https://doi.org/10.14404/JKSARM.2025.25.3.083>
- 김현정, 배성중 (2025). 사립대학의 기록관 설치 기준에 관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6(4), 351-376. <https://doi.org/10.14699/kbiblia.2025.36.4.351>
- 박유진, 정영미 (2019). 대학의 이메일 기록관리 실태와 조직구성원들의 인식: D대학을 사례로. 한국 기록관리학회지, 19(2), 193-211. <https://doi.org/10.14404/JKSARM.2019.19.2.193>
- 배성중, 김태영, 한혜원, 김용 (2015). 국립대학교 기록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거점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6(4), 151-178.
<https://doi.org/10.14699/kbiblia.2015.26.4.151>
- 이주연 (2008). 국·공립 대학기록관리의 현황과 과제: 부산·경남지역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1), 167-187.
- 이혜경, 이해영 (2014). 대학기록관 기록정보서비스의 현황과 발전 방안: 실무자 면담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40, 131-180.
- Australian Catholic University (n.d.). Naming and titling conventions guideline. Available: <https://policy.acu.edu.au/document/view.php?id=379>
- Harvard Library (n.d.). Manage Harvard University records. Available: <https://library.harvard.edu/how-to/manage-harvard-university-records>
- Monash University (2025a). Information management framework. Available: https://www.monash.edu/__data/assets/pdf_file/0010/3941191/Information-Management-Framework-v2025.01-2025.03.17.pdf
- Monash University (2025b). Information management policy. Available: https://www.monash.edu/__data/assets/pdf_file/0009/3982734/IM-Policy-37066160.pdf
- Queen's University (n.d.). Records management and privacy office. Available: <https://www.queensu.ca/accessandprivacy>

The University of Melbourne (n.d.). Records management guides. Available:
<https://records.unimelb.edu.au/guides>

The University of Sheffield (n.d.). University records and archives. Available:
<https://sheffield.ac.uk/library/university-records-and-archives>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n.d.). Records management. Available:
<https://recordsmanagement.ubc.ca>

University of Michigan Bentley Historical Library (n.d.). Records management manual. Available:
<https://bentley.umich.edu/records-management/manual>

University of Washington (n.d.). Records retention schedules. Available:
<https://finance.uw.edu/recmgt/retentionschedules>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Bae, Sungjung, Kim, Tae Young, Han, Hye Won, & Kim, Yong (2015). A study on the methods to improve records management of the national university: focused o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center of the foothold national universit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6(4), 151-178.
<https://doi.org/10.14699/kbiblia.2015.26.4.151>.

Kim, Du Ri & Kim, Soojung (2014). A study on users' perceptions of archival reference services in a university archiv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1(4), 29-47. <https://doi.org/10.3743/KOSIM.2014.31.4.029>

Kim, Eun Jin & Koo, Joung Hwa (2020). Evaluation and analysis of online public relation activities in university archives: focusing on the websit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4(4), 283-315.
<https://doi.org/10.4275/KSLIS.2020.54.4.283>

Kim, Hyunjung & Bae, Sungjung (2025). A study on the legal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standards governing the establishment of archives at private universit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6(4), 351-376.
<https://doi.org/10.14699/kbiblia.2025.36.4.351>

Kim, Jiyeon & Kim, Youseung (2025).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cords appraisal in private universiti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5(3), 83-103. <https://doi.org/10.14404/JKSARM.2025.25.3.083>

- Kim, Min-kyung, So, Jeong Eui, Kim, You-Kyung, & Oh, Hyo-Jung (2018). A study on the analysis and improvement plans of record management in closed private university: focused on "Seonam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9(4), 203-225. <https://doi.org/10.14699/kbiblia.2018.29.4.203>
- Kong, Min Eun (2018).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Records Related to Students in University: Based on the Case of Myongji University.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 Lee, Hye Kyoung & Rieh, Hae-Young (2014). Current status and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of university archives' information services: based on the interview with the archives' staff.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40, 131-180.
- Lee, Ju Youn (2008). The current status and tasks of national & public university archives management: focusing on Busan and Gyeongnam a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8(1), 167-187.
-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22). Standard Model for Archives: Function and Procedure (NAK 9:2022(v2.3)).
-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24). Major Statistics Yearbook,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26). Guidelines for University Records Management.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2025). Declining School-Age Population and the Crisis of Higher Education: Examining the Need for a Paradigm Shift in Korea's Future University Education System.
- Park, Yu Jin & Jung, Youngmi (2019). Perceptions and practices of employees regarding email records management in universities: a case study of D Universit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9(2), 193-211. <https://doi.org/10.14404/JKSARM.2019.19.2.193>
-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Act No. 21066.

